



養鷄產業의 方向과 進路



吳鳳國
(농학박사·서울대 농대교수)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다른 축산업에 비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불안요소와 어려움을 안고 있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계산업은 요즘과 같이 중동산유국들의 유류감산 운동과 유가인상 작전,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식량난과 사료가의 계속되는 앙등으로 혹 한의 추위보다도 더 무서운不安을 우리 양계인에게 안겨다 주고 있다.

또한 79년부터 계속되는 양계불황은 좀처럼 가실줄 모르고 있으며 그간 몇몇 사람에 의하여 불황타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업계의 호응이 부족하고 상호불신으로 인하여 결실을 보지 못한 채 긴 동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 있어 앞으로의 양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와같이 사태가 어렵고 복잡하게 꼬여있을 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되는 임시응변의 유혹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양계인이 다같이 살수있는 대원칙을 내세워

다소의 잡음이나 부작용이 있다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밀고 나가며 서로 단합하고 협조한다면 '80년대의 양계산업'은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는 80년대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어려운 양계 환경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양계산업이 나야가야 할 진로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간된다.

1. 양계산업의 기본방향

70년대의 우리나라 양계업은 발전 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곧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으므로서 사육수수의 증가와 규모확대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므로 70년대는 양산체제하에 있었던 양계산업이였기 때문에 계산물의 품질향상이나 경영의 합리화로 값싼 물량의 생산에는 등한시 하였던 시대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생산자만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생각은 이미 낡은 시대 착오적 사고방식이고 생산자와 동시에 시장을 구성하는 다수 소비자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양계 생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것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식품」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0년대의 양계업의 기본방향은 과거의 양산체제에서 탈피하여 질적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로 좋은 품질의 "닭고기"와 "달걀"를 다른 어떤 축산물이나 식품보다도 값싸고 원하는 규격품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소비자가 사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양계업을 경영하여야 이 나라 양계산업이 전전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2. 양계산업의 진로

앞으로의 양계업은 과거와 같이 일시적인 투기사업이 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하나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양계업도 농가의 부업적인 존재가 아니고 규모에 있어서나 생산 과정의 체계로 보아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그 위치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식량 정책에도 큰 뜻을 차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서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양계산업을 식량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보호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양계산업의 기본진로는 첫째, 양산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사업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효율의 향상으로 값싸고 좋은 품질의 달걀과 닭고기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의 양계업은 주먹구구식 경영이 되어서는 후퇴만이 있을 것이며 전진하는 양계경영에서는 훌륭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원활이 回轉되도록 하는데서 알찬 경영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업의 구성 요소는 자본, 勞動(사람), 시설이다. 이 3 가지 요소가 잘 짜여지고 원활하게 회전될 때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자본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무리한 사업확장만을 피하여 과잉투자를 하게 되므로서 도산하는 예가 적지 않았고 병아리, 사료, 약품등 투입재의 외상 거래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外上 거래와 대월자금의 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의 가격인상으로 자금소요액이 높아져 잘것이 예상되므로 자금의 내부留保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支出의 削減을 위하여 資本蓄積을 튼튼히 하는 業者만이 運營의合理化를 도모할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구성은 사람이다. 앞으로의 양계업은 管理從業員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것으로 예상 된다. 노동문제와 시설투자는 서로 연관된 문제로서 노동감축에 따르는 시설포완은 불가피하나 과잉투자는 금물이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생산효율이 이를 카바하고도 남음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가 바람직 하며 노동절감과 관련된 투자로는 특히 케이지의 자동급사기, 사료탱크, 계분제거기 또는 高床式鷄舎로의 정책등이 바람직한 시설 투자라 하겠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값싼 노동력보다는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질적 향상과 労賃의 適正을 기하는 동시에 종업원도 企業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주어 人和와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업의 구성요소인 자본, 사람, 시

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닭이라는 생명체와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결합과 운영만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올릴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소비확대와 需要創出 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養鷄業의 基本姿勢는 「생산을 위한 생산」이 아니고『소비시장의 수요에 응하는 상품을 생산한다』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다른 산업의 예를 보아도 알수 있듯이 소비시장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계는 도태되고 마는 것이다. 즉 닭고기와 달걀의 대량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대상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創造의 힘”이 앞으로 양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셋째는 계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 하기 위한 생산의 調整문제이다. 이것은 個個 양계농가 스스로가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나 반대로 양계농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개개 양계가들이 자진참여하므로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단기적이고 계절적인 수급의 불균형은 저장과 가공 수출등으로 調整이 가능하나 장기적인 과정은 근본적인 생산조정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맺는말

양계업에 성공하려면 우선 주변의 정세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여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데서 성공할수 있을 것이다. 양계업도 기업의 하나로서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데는 현재 우리나라 양계업의 여건과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국내외 주변정세의 움직임도 충분히 고려하여 적어도 5~10년의 장단기 운영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착실히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인은 모름지기 왜 자기가 양계업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신념과 사명감이 없어서 앞으로 닥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자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자신이 없는 양계가는 미리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끝으로 축산인의 소망이던 축산협동조합중앙회가 '81년 1월 1일부터 발족하게 된데 대하여 축하해 마지 않는다. 축협 설립 취기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양축가의 협동조직으로 축산을 진흥시키고 양축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主目的이 있다고 했듯이 앞으로 양계가는 이러한 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양계업의 안정적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축협과 협회는 양자가 서로 존립할수 있는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축협중앙회가 발족이 되면 양계협회와 같은 단체는 필요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찰이라고 생각 된다. 축협은 어디까지나 축산인의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축산업에 관여되는 구판사업과 신용업무등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 반면 협회는 경제사업단이 아니고 양계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공익단체인 것이다. 예를 들면 양계업의 보호를 위하여 양축가의 의견을 집약 대표하여 농정에 반영 한다든가 정제문제 공해문제등에 대하여 유포에 건의하는 문제등이 협회가 할 주요 기능이다. 또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등도 좋은 예의 하나이다.

축협조직에 참여하게될 주요 멤버는 群小채란업자, 부로이러업자등 직접 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업자가 그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협회는 상기 생산업자외에도 양계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있는 부화업자 종제업자, 계산물 처리, 가공업자, 학계등이 참여할수 있으며 양계업의 전전한 발전을 위한 공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협회 운영에 대하여 평소의 의견을 기술하여 보면 가축육종에 있어서 오늘날 모든 畜種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잡종강세 (Heterosis)를 이용하고 있듯이 협회도 잡종강세이용 원칙을 적용하여 운영 한다면 보다 힘있고 운영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잡종강세란 닭의 다른 계통이나 품종을 교배하면 그의 일대잡종은 부모보다도 월등한 능력이 좋은 F_1 이 생긴다는 원리와 같이 채란, 브로이터, 종계, 부화, 학계, 처리, 가공업체들과 같이 양계업의 성격이 다른 업종들이 서로 단합하면 한국양계업은 잡종강세의 힘이 나타나 강력하고 우수한 결실을 가져올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 바이다. 或者는

부화와 채란, 종계업과 브로이타업자등 이질적인 업자끼리 서로 모여서 무슨 대화가 되며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학계가 업자단체에 왜 개입하려 하느냐등 의견이 있으나 큰뜻에서 모두 우리나라 양계에 관련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분야는 머리, 몸, 다리, 입 등과같이 다르지마는 이들 부분품이 모여서 사람을 구성하듯이 몸의 각부위가 서로 모여서 제각기 맡은바 책임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훌륭한 인간이 되듯이 협회도 양계의 각 분야가 모여서 단합하면 잡종강세의 큰 힘을 발휘하여 옛날의 가금협회와 같이 단합된 힘을 우리나라 양계업 발전에 크게 공헌할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다.

동호가축약품상사

- 난치성 질병 상담
- 칠면조 사양·질병상담
- 가축약품 종합판매

수의사 : 이 동 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10-186

☎ 476-1835

